

Artist's Statement**하신혁**

나는 흙을 겹겹이 쌓는 행위를 통해 시간과 감각의 축적을 기록한다.

작품은 기(器)에서 출발한 조형 언어를 바탕으로 코일링 기법을 사용해 한 층씩 쌓아 올려지며, 반복된 손의 움직임은 표면에 미세한 층위를 남긴다. 이 층들은 제작 과정에서 흐른 시간과 나의 호흡이 고요히 응축된 흔적이다.

작품의 색과 농담은 의도적으로 절제되어 있다. 멀리서 보면 단색에 가까운 침묵의 형태로 인식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겹쳐진 층과 미세한 변화가 드러난다. 이는 산수화에서 원경과 근경이 교차 하듯, 시선의 거리와 머무는 시간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경험을 유도한다.

기물은 사용을 전제로 한 기능적 오브제이면서 동시에 감상을 위한 조형물이다. 나는 이 경계에서 기가 특정한 형식에 머무르기보다, 손끝으로 빚어낸 시간이 축적된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겹겹이 쌓인 표면은 채움의 과정이자 동시에 비움을 향한 사유의 공간이며, 고요 하지만 공허하지 않은 여백으로 남는다.